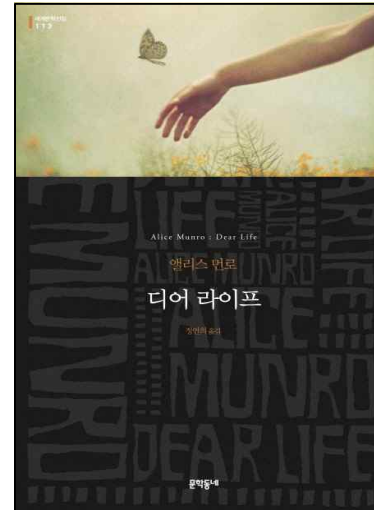


문학예술 분야

1월의 읽을 만한 책

분야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발행일	추천자
문학 예술	디어 라이프	앨리스 먼로/ 정연희	문학동네	2013.12.05	정이현
	현대 건축을 바꾼 두 거장	천장환	시공사 (시공아트)	2013.09.16	이현우
인문학	1902년, 조선인 하와이 이민선을 타다	안형주	푸른역사	2013.11.30	김문식
	숫자에 속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게르트 기거렌처/ 전현우 외	살림	2013.09.30	이진남
사회 과학	펭귄과 리바이어던	요차이 벤클러/ 이현주	민음사 (반비)	2013.10.07	왕상한
	스튜피드	리치노튼 외/ 조성숙	미디어월	2013.11.25	전형구
자연 과학	서민의 기생충 열전	서민	을유문화사	2013.07.15	이한음
실용 일반	남자를 위하여	김형경	창비	2013.11.25	이하경
유아 아동	꽃바구니 속 노랑할미새	권오준 글, 백남호 그림	보리	2013.11.20	김대경 이상희



디어 라이프

앨리스 먼로/정연희/문학동네

2013.12.05 발행/440쪽/1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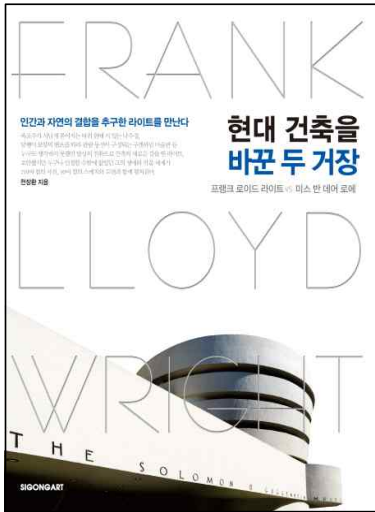
201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캐나다의 여성 작가 앨리스 먼로의 최신 작품집이다. 또한 현재 82세인 작가가 자신의 마지막 작품집이라고 선언한 그 책이기도 하다. 앨리스 먼로는 오직 '단편소설'만을 쓰는 소설가이다. 그에게 단편은 하나의 완결된 세계이다. 그 세계는 한정적이고 유한하지만, 그의 소설을 읽다보면 그 한정성과 유한성이 바로 우리 삶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먼로의 소설 대부분은 캐나다의 작은 소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위대하거나 특별해 보이는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 인물들은 소소한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간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안에 비밀스러운 욕망이 감춰져 있고, 그 욕망들은 인간을 치명적인 선택의 순간 앞으로 불러낸다. 그 앞에서 때론 머뭇거리고 때론 소용돌이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작가는 비범한 통찰력으로 서늘하도록 냉정하게 묘사해낸다.

작가의 어린 시절을 회고한 표제작 「디어 라이프」를 포함해, 언니의 익사 사고 이후 평생을 그 기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동생을 그린 「자갈」,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약혼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기차에서 뛰어내린 군인에 대한 이야기인 「기차」,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권태를 느끼며 호감을 가졌던 남자를 만나겠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은 젊은 시인을 그린 「일본에 가 닿기를」 등 총 14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이 단편들을 읽고나면, 소설이 한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내면을 뒤흔드는 것은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문학이 읽히지 않는 시대, 노벨상 수상작가라는 후광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우리가 이제야 앨리스 먼로라는 이름에 주목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 추천자 : 정이현(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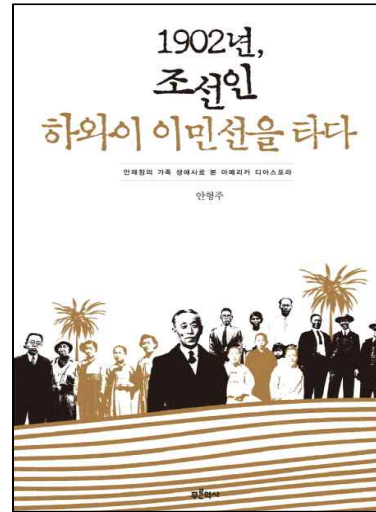
**현대 건축을 바꾼 두 거장
천장환/시공사 시공아트
2013.09.16 발행/416쪽/22,000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두 좌표축으로 하여 살아간다. 시간을 채우는 것이 활동이라면 공간을 채우는 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품게 되면 건축이 좀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고 건축물 사이로 왕래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니까. 건축이 단순히 재료나 평수, 전망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이유다. 건축은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삶의 틀이고 문화다.

여기 현대 건축을 바꾼 두 거장이 소개된다. 르 코르뷔지에와 함께 현대 건축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미스 반 데어 로에다. 우리에게 친숙한 구겐하임미술관이 라이트의 작품이고 시그램 빌딩이 미스의 필생의 역작이다. 저자는 두 건축가의 삶과 그들의 철학, 그리고 대표 건축물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하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건축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공간 개념 자체가 현대 건축을 이끈 두 거장이 빚어낸 것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품었든가. 미스에게 건축은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였다. “나는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다. 단지 표현하고 싶을 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라이트도 근사한 말을 남겼다. 불멸을 믿느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지금까지 불멸이었고 앞으로도 불멸일 겁니다.”라고 답했다.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멸의 건축물들을 남긴 거장다운 말이다.

- 추천자 : 이현우(인터넷 서평꾼)



**1902년, 조선인 하와이 이민선을 타다
안형주/푸른역사
2013.11.30 발행/396쪽/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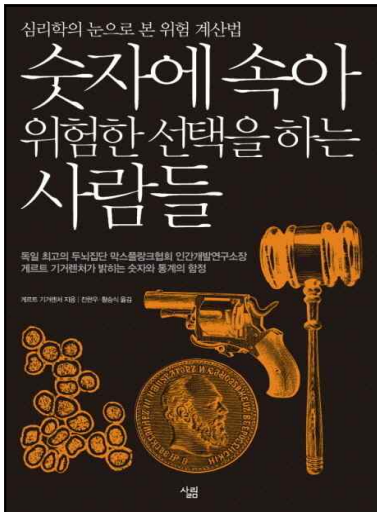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의 재외동포는 700만 명이 넘으며 재미 한인만 해도 200만 명에 이른다. 이 책은 최초의 하와이 이민자였던 안재창의 삶을 통해 재미 한인들의 생활상과 자강 운동을 보여준다. 안재창은 1873년에 경기도 양주군 심근술 마을에서 죽산 안씨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1902년 12월에 첫 하와이행 이민선에 오른다. 농장에서 모은 돈으로 선진 문명을 배우고 부를 이루어 돌아오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하와이 사탕수

수 밭의 노동자로 이민 생활을 시작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원사로 일했고, 네브래스카 주의 링컨 대평원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콜로라도 주에서는 한인농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농토를 구입하기에 이른다. 그의 사업상 전성기는 디트로이트에서 중국 음식 도매업체인 정안회사를 설립한 이후였다. 그는 한인 동업자들과 힘을 모아 성공을 이루었고 마침내 디트로이트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안재창의 이동 경로는 한인들의 활동 무대가 캘리포니아를 지나 동쪽으로 네바다, 콜로라도, 유타 주 지역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된다.

그의 삶은 재미 한인들의 항일 독립운동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는 국채보상금, 장인환 정명운 의사 보호기금, 신한민보 의연금을 내는 등 독립운동을 후원했고, 박용만이 유타 주에 건설한 한인소년병학교의 후원자이자 이승만을 지지하는 동지회의 회원이었다. 그가 직접 접촉한 독립운동가에는 박용만, 이승만, 김규식, 서재필 등이 있었고 도산 안창호는 그의 조카였다.

필자가 20여 년에 걸친 자료 수집을 통해 한 개인과 가족, 주변 인물들의 삶을 오롯이 살려낸 것이 주목되는 역작이다.

- 추천자 : 김문식(단국대 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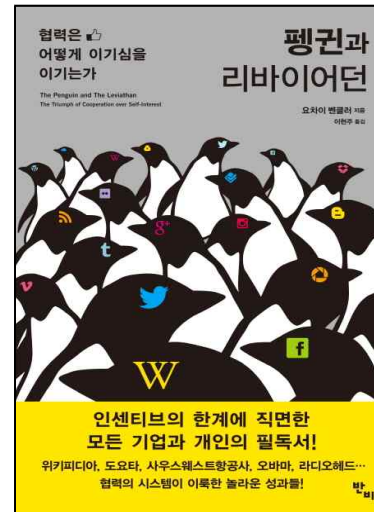
숫자에 속아 위험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게르트 기거렌처/전현우 외/살림
2013.09.30 발행/420쪽/18,000원

우리 대부분은 모호한 세계보다 확실한 세계에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의 기대처럼 확실한 것이 아니다. 확실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를 왜곡한다. 결국 세상을 있는 그대로 불확실하게 보지 않고 지나치게 단순한 모습만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렇게 과도한 기대가 우리 스스로를 기만에 빠뜨린다.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는 이 책에서 통계와 숫자라면 덮어놓고 믿는 우리의 부주의한 습관에 경종을 울린다. 유방암이나 에이즈 검사 같은 의학의 영역 뿐 아니라 폭력·살인·DNA검사 같은 범죄수사와 재판의 영역, 일기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고 살아왔는지를 낱알이 보여준다. 유방암 발병률이 1%일 때,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90%,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9%라면, 양성결과가 나온 여성이 실제로 유방암에 걸린 확률은 얼마일까? 90%가 아니라 10%이다. 왜 그럴까? 그리고 왜 우리는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일까? 햇빛 아래의 색깔에 익숙한 우리가 네온등 아래에서는 같은 물체도 다른 색으로 보듯이, 자연수에 익숙한 우리에게 통계적 숫자들은 쉽게 오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저자는 특히 조건부 확률로 말하면 일반인 뿐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들까지도 엉뚱하게 오해하게 된다는 점을 폭로한다. 그 결과 과잉진료, 과잉수사, 과대광고가 판을 치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통계와 숫자에 속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방법은 첫째, 세상에는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둘째, 위험에 대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배우며, 셋째, 통계 대신 우리에게 익숙한 자연빈도를 사용해 명확하게 정리 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저자는 통계와 숫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산맹으로 진단하고 그 처방전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 추천자 : 이진남(숙명여대 교양교육원 교수)



펭귄과 리바이어던
요차이 벤클러/이현주/민음사 반비
2013.10.07 발행/245쪽/16,500원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이라고 배웠다. 타고나길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배웠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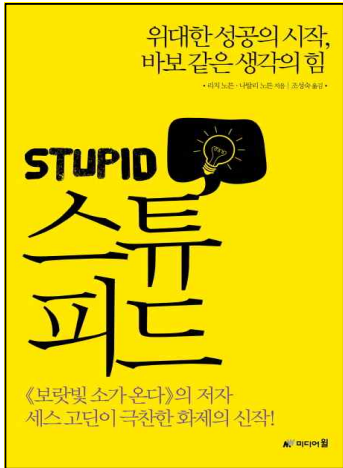
주위를 돌아보면 교육제도도 그렇고 각종 법제와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조직은 보상과 처벌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윤을 높이려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파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나태해지려는 자들을 가혹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를 줄이려면 철저한 응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돈 한 푼 받지 않는 자발적인 기고만으로 브리태니커의 명성에 도전한 위키피디아의 사례는 인간의 이기심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대중에 배포하는 오픈소스 경제 또한 자기밖에 모른다는 인간의 이기심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밖에도 인간의 이기심을 전제로 한 산업 시대의 조직 운영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특히 정보화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힘은 이기심이 아니라 협력의 힘이다.

하버드대학 요차이 벤클러 교수의 '펭귄과 리바이어던'은 이타심과 선의에 기반한 협력의 시스템을 그려내고 있다. 벤클러 교수는 신경과학, 경제학, 사회학, 진화생물학, 정치학, 심리학, 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인식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입증해 보이고 있다. '펭귄과 리바이어던'은 현실에 존재하는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이타심과 선의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동기를 이끌어내는 '협력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도를 개혁하고, 범죄를 줄이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시민운동을 키우고, 비즈니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추천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부 교수)

사회과학 분야



스튜피드
리치노튼 외/조성숙/미디어월
2013.11.25 발행/296쪽/14,000원

“위대한 성공의 시작 바보 같은 생각의 힘”이라는 부제가 있는 이 책은 상식과 달라서 ‘바보 같은 생각’ 혹은 ‘바보짓’이라고 치부되는 것들이 개인의 삶과 조직,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만드느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리치 노튼은 21세의 처남과 76일 된 막내아들의 죽음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계속 미루기만 했던 진짜 원하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책은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1은 “바보 같은 생각이 영리함을 이긴다”라는 주제로 ‘가빈의 법칙’, ‘생각의 틀을 깨는 바보의 역설’ 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파트 2는 “지금 바보 같은 일을 시작하라”라는 주제로 ‘베조스 테스트’, ‘TEM 골짜기’를 통해 병명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파트 3에서는 “바보 같은 생각은 혁신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바보와 혁신의 고리’ 등을 통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파트 4에서는 “성공하는 바보들의 6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 ‘두려움을 부숴라’, ‘자만심을 버려라’, ‘늑장 부리는 습관을 극복하라’ 등 6가지 원칙을 통해 ‘바보로 돌아가 진짜 인생을 시작하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세상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변화한다. 방금 전 ‘혁신’이라 불리던 것이 금방 ‘표준’이 되어버린다.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세상 모든 혁신이 바로 이런 개인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환영받지는 못한다. 상식이나 표준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상식을 넘어선 아이디어가 인생을 후회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는 진실을 행하는 용기를 가지고서 인생과 세상을 바꾸었다. 이들과 달리 자기 안에 내재돼 있는 방향 감각을 믿고 실행한다면 누구라도 혁신을 만들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낼 수 있다. 이제 망설이지 말고, 당장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현명한 바보짓을 START해 보자!

- 추천자 : 전형구(독서경영 칼럼니스트)

자연과학 분야



서민의 기생충 열전
서민/윌유문화사
2013.07.15 발행/332쪽/15,000원

보건 위생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전 덕분에 기생충이라는 말은 이제 웬지 시대착오적인 느낌을 준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누구나 촌충과 회충을 몸속에 지니고 살았다는 기억조차 아득해졌다. 대신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곤충의 몸에 사는 기생충인 연가시를 보면서 호들갑을 떠난다. 연가시보다 훨씬 더 크고 흉측한 회충이 자신들의 몸속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시대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기생충 이야기를 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직접 겪은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로서 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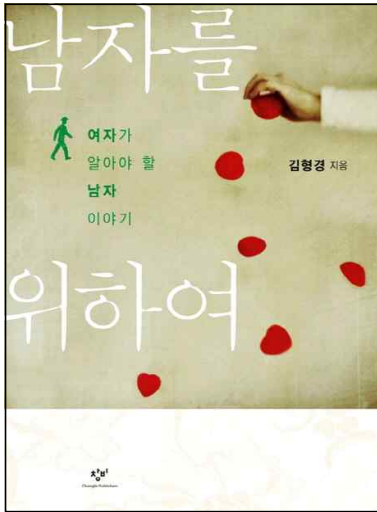
이 책에는 흥미롭기 그지없는 실제 사례들이 가득하다. 민물 회를 잘못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된다고 말해도 약 먹으면 낫겠지 하고 태평스럽게 대꾸하는 주민, 기생충을 연구하기 위해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어 알과 유충을 먹는 연구자, 해외여행 중에 낯선 기생충에 감염되어 오는 여행객 등 온갖 재미있는 (당사자로서는 아니겠지만)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책은 기생충이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점도 알려준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기생충 감염자가 1백만 명이 넘으며, 기후 변화가 지속되고 세계화가 지속될수록 계속 새로운 기생충이 들어올 것이다. 저자는 현재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아토피와 알레르기도 기생충 감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생충에 맞서 수만 년에 걸쳐 발달한 우리의 면역체계가 상대할 기생충이 없어지자, 자기 몸을 집적거리기 시작하면서 아토피 같은 자가 면역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어쨌거나 이 책은 재미있다. 자, 흥미로운 기생충들을 만나보시라.

- 추천자 : 이한음(과학 전문 저술 및 번역가)

실용일반 분야



남자를 위하여
김형경/장비
2013.11.25 발행/328쪽/13,500원

남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자의식이 강한 여성들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질문이지만 남자들에게는 의외로 낮은 질문이다. 한국 사회는 강력한 남성중심의 사회, 남성의 성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어느덧 여성이 유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탓이다. 이제 여자와 비교되는 '남자'에 대한 탐구는 남녀 모두에게 전공 필수의 과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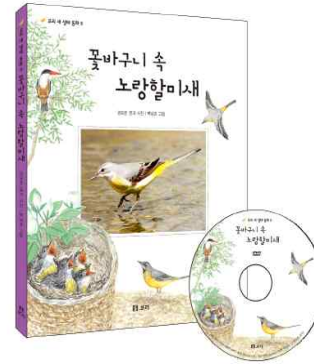
이런 사회변동의 변곡점에서 나온 김형경의 '남자를 위하여'는 남자가 경쟁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공존의 시대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경전이다. 그는 일상의 평범한 시선으로는 끝내 도달할 수 없는 심리적 극한 지점을 여지없이 포착해 사정없이 해부하고, 뒤흔들어 낸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우하는 남자들, 신화와 소설에서 만나는 남자들의 은밀하면서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남자들은 왜 첫 사랑을 잊지 못할까. 왜 중요한 순간에 여자를 버리고 도망갈까. 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까. 왜 자동차의 작은 흠집에도 그토록 흥분할까. 왜 여자의 성공을 두려워할까. 왜 여자와 친구가 될 수 없을까. 저자는 남자로도 살아보고 여자로도 살아봤던 그리스 신화 속 테이레시아스처럼 자유롭게 남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속 시원하게 의문을 풀어주고 있다. 가령 "남자에게 경쟁은 삶의 기본 속성이며, 유희이며 일종의 의식이다"라거나 "남자들이 그토록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유아기에 받은 애정의 양과 관련이 있다"라는 대목에 이르면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다.

한결같이 남자의 외로움에 대한 다양한 변주인데, 결국은 위로의 에세이로 읽혀진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 스스로도 몰랐던 남자 이야기를 통해 남녀가 온전히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추천자 : 이하경(중앙일보 논설주간)

유아아동 분야



꽃바구니 속 노랑할미새
권오준 글, 백남호 그림/보리
2013.11.20 발행/100쪽/13,000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새 이름을 아는 대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몇 종류 정도 말할 수 있을까? 참새, 까치, 비둘기…… 아마도 열 손가락 이내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 등장하는 검은딱새, 노랑할미새, 때까치, 쇠오리, 어치, 흰뺨검둥오리 등 우리 주변에 살고 있

다고 하는 귀엽고 깜찍한 새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신기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이다.

『우리 새 생태 동화』 시리즈 중 한 권인 이 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단순히 우리가 몰랐던 새의 이름과 생태만을 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새들이 둥지를 틀어 새끼를 길러 내는 과정을 읽으면서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따뜻한 봄이 되면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노랑할미새가 왜 컨테이너 집에 걸린 낡은 꽃바구니에 아슬아슬하게 둥지를 틀 수 밖에 없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된다.

아이들과 함께 책 속에 달려 있는 동영상을 보며 새들의 세계에 흠뻑 빠져보는 건 어떨까? 집 주변에 산책할 만한 숲이나 길이 있다면 이제 꽃과 나무에만 주던 눈길을 돌려 지지귀는 새들과도 다정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다.

- 추천자 : 김대경(서울 성수고 교사), 이상희(그림책 작가, 시인)